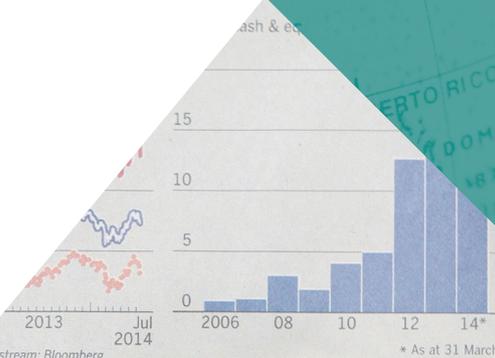


Feb
2019

KEB Hana Market Monthly

- ▶ 연구위원 서정훈
02. 729. 0195 / seojh@hanafn.com
- ▶ 연구원 박정온
02. 729. 0190 / jungeunpark@hanafn.com



to facts might tempt a investor to hang in with by buying Rosneft's shares. and a fourth fact: these es trade below book va two times Rosneft's in and gas reserves (Exxor 17 times). About \$14bn coming due this year, \$1 next. Rosneft may pay it continuing to sell its oil - dollars. Sanctions still allow access to US dollar clearing.

the maker of a Come Dine ay that it is an attractive move. on is not the biggest JPMorgan estim es account for 24 percent of this year. But L o best s an owner and c the balance of ITV in the next six months but it could come back late Yes, there are financial constraints - the rest of ITV would cost £7.4bn at today's price and Nomura estimates that by the end of 2014 Liberty's net debt will be a hefty 5 times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



Feb
2019

목 차

| | |
|------------------|----|
| 금리 | 03 |
| 달러/원 환율 | 05 |
| 엔/원 환율 | 07 |
| 유로/원 환율 | 08 |
| 주요 국내경제 지표 | 09 |
|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 09 |



www.kebhana.com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 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금 리

1월 동향 상존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의 영향이 다소 제한되었지만, 연준의 강한 통화완화적 시사에 월 후반 하락 압력 강화

월 초, 마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 상존, 한은 총재의 연초 국내 물가 우려 발언 등이 하락 견인

- 1월 초, 연준의 비둘기 성향 표명 및 미중 무역협상 타결 불확실성 속에 한은 총재의 신년사 관련 국내물가 우려 발언 등으로 1.81% 전후 등락
 - 월초 연준의장의 통화완화적 스탠스 표명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금리는 연말 이후 낮은 레벨 인식 등으로 기술적 상승 전환 시현
 - 이어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과 한은 총재의 연초 신년사 언급에서 낮은 수준 물가 우려 발언 등으로 1.8% 초반까지 하락 후 좁은 범위 등락

중반, 브렉시트 탈퇴 우려 축소 및 마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로 상승 전환

- 1월 중반, 상존한 대내외 이슈에 의한 금리 방향성 결정이 제한된 가운데 미 섯다운 이슈와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 우려 축소 속에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 전환
 - 1월 중반, 상존한 대내외 이슈에도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영향력 있는 이벤트 제한되며 1.81% 초반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
 - 이후 미 섯다운 이슈가 재차 불거지며 안전자산 선호를 강화했으나, 곧이어 영국 EU 탈퇴 우려 완화 및 미-중 무역분쟁 우려 축소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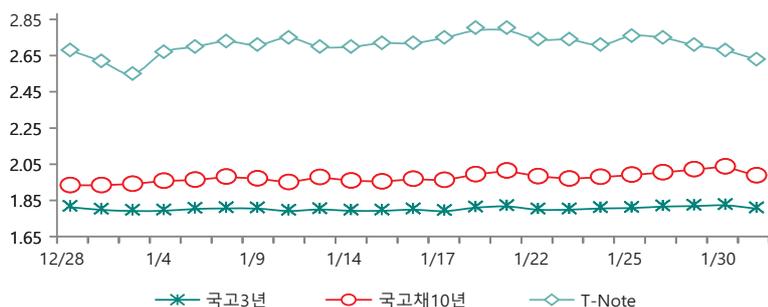
국내 및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속에 연준의 비둘기적 FOMC 결과가 국고채 금리의 강한 하락을 견인

- 1월 후반, 중국 및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이 반영되며 하락 전환 후, 1월 FOMC의 강한 비둘기적 성향으로 낙폭 확대 양상 시현
 - 1월 후반,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 예상치 하회 속에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이에 따른 성장률 하향 조정과 금리 동결 이슈 등이 부각되며 하락
 - 이어 연준이 1월 FOMC에서 최근 경기 및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금리 인상에 '인내심' 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점이 국고채 금리의 추가 하락 견인

1월 평균

국고채(3년): 1.81%
 국고채(10년): 1.99%
 T-Note(10년): 2.71%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2월 전망 연준 통화완화적 스탠스와 중국 경기 하강 방어 가능성 점중에도 국내 경제가 상대적 성장세 둔화 가능성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 지속으로 국고채 금리 소폭 하락 압력이 예상

| 평균 | 2018. 4Q | 2019. 1Q ^F | 2019. 2Q ^F | 2019. 3Q ^F |
|------------|----------|-----------------------|-----------------------|-----------------------|
| 국고채(3년, %) | 1.97 | 1.83 | 1.85 | 1.90 |

- 연준의 비둘기 스탠스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단기적으로 작용할 전망 속에 견조한 미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채 금리의 점진적 반등이 예상
 - 전월 FOMC 이후 연준의장의 완화적 스탠스가 단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긍정적일 전망
 - 이러한 결과 반영에 따른 단기금리 하락에도 견조한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경제주체의 기대 반영으로 장기금리 상승 속에 수익률곡선의 우상향이 예상
- 전월 IMF의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경고는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경기 하강 방어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 IMF의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3.7%→3.5%)은 시장에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위험회피 심리 영향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이 최근 경기 하방압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부양책 등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완화하며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그러나 대내적 수출경제 및 물가 부진 등 경기 활력 모멘텀 부재에 따른 한은의 향후 금리 동결 전망이 국고채 금리 상단을 크게 제한할 전망
 - 국내 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비 0.8%로 1년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KDI도 2월 경제동향에서 국내 일부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며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회복에 대한 시장 기대가 약화하는 상황
 - 여기에 미국의 완화적 통화기조에 따른 한은 총재의 향후 금리동결 시사 가능성 등이 국고채금리 상단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1.8% 초반 흐름을 이어갈 전망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는 단기금리 하락 요인인 가운데 견조한 경기회복 기대는 장기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

전월 IMF의 경기둔화 경고의 선반영 속에 중국도 경기둔화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점이 위험회피 심리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

대외적 위험선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지속하는 상황에 따라 2월 국고채(3년) 금리는 1.78%~1.84% 범위가 예상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단기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장단기 수익률곡선 우상향 확대 가능성 · IMF 세계 성장률 둔화 경고의 선반영 · 중국의 경기하강 방어 역량 집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출 및 물가 등 주요 지표 부진 ·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평탄화가 지속되고 있는 수익률 곡선 양상 |

달러/원 환율

1월 동향 초반 G2 경기하방 압력과 무역협상 이슈 연동 속에 1,120원 전후 흐름 보이다 연준의 완화적 통화스탠스 이후 1,110원 초반까지 하락

1월 초, G2의 경기 하방 압력에도 연준 의장의 비둘기적 성향 선회 신호에 따라 1,120원대 초반 흐름

중반, 중국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졌음에도 미-중 무역협상 기대에 따른 위안화 강세 혼재 속에 1,120원 초반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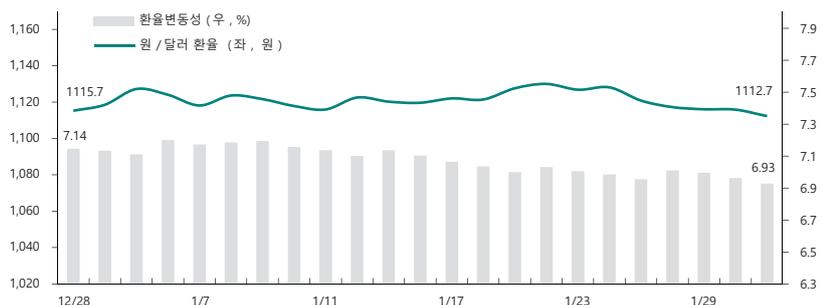
IMF의 경기둔화 경고에도 1월 FOMC의 강력한 통화 완화 신호에 위험선호 심리 강화되며 1,110원 초반까지 하락

- 1월 초, 미국과 중국 경기하방 압력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후, 연준 의장의 비둘기 성향 선회 및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로 1,120원 전후 흐름 시현
 - 1월 초, 미국 섰다운 장기화 우려와 중국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 증대 속에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며 1,120원 후반 움직임 출발
 - 이어, 국내 기업실적 부진 소식에도 미-중간 무역협상의 순조로운 진행과 FOMC 의사록의 완화적 성향 재확인에 따라 1,120원 초반까지 하락전환
- 중국 경제지표 부진이 환율 상승압력으로 작용했으나, 이후 미-중 무역긴장 완화와 중국 경기부양 전망 등이 위험선호에 영향을 미치며 1,120원대 흐름 지속
 - 1월 중반에도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위안화 약세와 위험회피 심리를 크게 자극
 - 이후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속에 미국의 중국 관세인하 논의 발언 등이 외환시장의 긴장 완화에 영향을 미치며 1,120원대 초반 흐름 지속
- 1월 후반, IMF의 비관적 세계 경기 둔화 경고 속에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영향이 환율 상승으로 반영되었으나, 1월 FOMC회의의 상당히 강한 완화적 시그널로 월말 1,110원대 초반까지 하락
 - 1월 후반,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경고 속에 국내 반도체 경기 우려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며 1,130원대까지 급등
 - 반면, 중국이 선제적으로 경기방어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 데 이어, FOMC 에서 상반기 내 금리동결로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완화적 신호를 제공함에 따라 환율은 급락하며 전월보다 30원 하락한 1,112.7원으로 마감

1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1.7원

1월말 달러/원 환율 : 1,112.7원

달러/원 환율 추이 및 환율 변동성



자료: 연합인포맥스, KEB하나은행

2월 전망 초반 연준의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달러 약세 예상되나 후반으로 가며 점진적 국내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상승 전환 전망

| 평균 | 2018. 4Q | 2019. 1Q ^F | 2019. 2Q ^F | 2019. 3Q ^F |
|------------|----------|-----------------------|-----------------------|-----------------------|
| 달러/원 환율(원) | 1,127.8 | 1,125 | 1,120 | 1,135 |

- 전월 연준의 완화적 통화스탠스가 2월 초까지 위험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미 섯다운 임시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에 의한 미국 경기 등락 가능성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것으로 보임
 - 전월 FOMC의 통화완화적 기조는 단기적으로 2월 초반까지 위험선호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그러나 미국 경제 지표의 등락 양상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섯다운 임시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은 중반 이후 위험회피 심리를 재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 미-중 무역협상의 긍정적 측면에도 최종합의까지의 불확실성 상존 속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부양 여력 소진 등이 위험회피 심리를 강화할 전망
 - 미-중 무역갈등 휴지기 속에 협상 과정의 긍정적 측면이 있었으나, 여전히 결과가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합의까지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
 - 여기에 최근 중국이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부양여력이 소진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점이 안전자산 선호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대내적 1월 수출경제 및 물가 지표 부진 등 국내 경제 회복 모멘텀 부재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면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 통화완화 등이 외국인 자금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미약한 국내 경제 회복세가 대외 신인도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원화 약세를 상대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을 전망
 - 이에 월 초반 달러 약세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월 후반으로 가면서 원화 약세가 다소 부각되는 가운데 환율은 1,118~1,128원 범위 등락이 예상

연준의 전월 완화적 통화스탠스에도 경기지표 등락이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섯다운 임시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등이 달러 약세를 제한할 전망

미-중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까지 불확실성이 상존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둔화 방어를 위한 부양 여력이 점진적으로 소진되는 양상

2월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18원~1,128원 전망

| 상승 요인 | 하락 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하방압력의 상대적 확대에 따른 원화 약세 · 미 연방정부 섯다운의 임시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1월 금리 동결 이후 통화완화적 스탠스 지속 영향 · 미-중 무역협상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위안화 강제 스탠스 |

엔/원 환율

1월 동향 월 초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우려로 엔화 급등하며 달러/엔 104엔, 엔/원 1,060원 기록. 이후 미국 완화적 통화정책과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완화되며 엔화 약세 흐름 지속

엔/원 환율 전월대비 6.7원 상승한 1,021.8원에 마감

- 월 초 엔화 급등에 엔/원 환율 1,060대까지 상승한 이후 전반적인 안전자산 선호 완화로 하락세 시현
 - 월 초, 애플의 매출 전망 하향조정과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 우려에 따른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엔/원 환율 1,060원대까지 상승한 이후 빠르게 진정
 - 월 중반,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1월 FOMC의 통화정책 정상화 연기 신호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완화되며 엔/원 환율 완만한 하락 시현
 - 월 후반, 중국 경기부진, 미국의 섰다운 장기화 등이 엔/원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1월 FOMC의 자산축소 조정 가능성 시사에 안전자산 선호 완화됨에 따라 환율 하락 견인

2월 전망 1월 중 다소 진정되었던 불안요인들이 월 중반 이후 재점화될 가능성 높아 월 중반을 기점으로 달러/엔 환율 하락, 엔/원 환율 상승이 예상됨

달러/엔 하락 우위 전망

-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가 달러/엔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연준의 비둘기파적 스탠스 속 미국 임시 예산안 시한(2/16), 미 상무부의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조사 보고(2/16), 파월 의장의 의회 청문회 출석(2/18~22일중), 미중 무역협상 마감(3/1) 등 잇따른 이벤트를 앞두고 1월 중 다소 진정되었던 불안요인들이 월 중반 이후 재점화될 가능성 높음

엔/원 환율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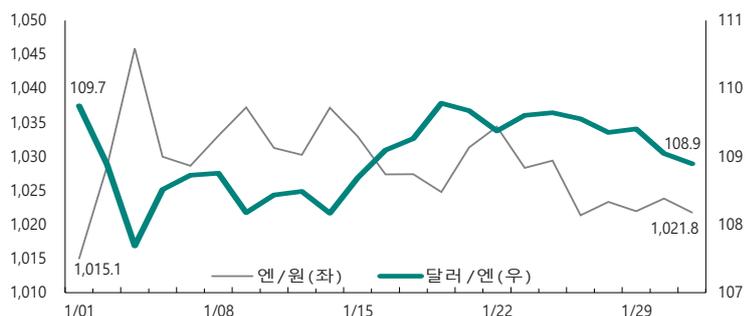
- 엔/원 환율은 잠재적 불안요인의 재점화 가능성에 상승 전망
 - 상기의 글로벌 불안 요인들에 따른 엔/원 환율 상승 전망. 한국 경기 둔화 우려 또한 환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28일 예정되어 있는 2월 금통위에서의 경기둔화 관련 발언시 환율 상승폭 확대 예상
 - 다만,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환율 상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1월 달러/엔 평균환율 : 109.0엔

1월 엔/원 평균환율 : 1,029.0원

2월 엔/원 예상 범위 : 1,010원~1,050원

엔/원 및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유로/원 환율

1월 동향

달러 약세 및 글로벌 불안 심리 완화에 유로 강세 강화되며 유로/원 상승. 이후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및 유로존 경기 지표 부진, 드라기 총재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 내부적 요인들에 영향 받으며 하락

- 유로/원 환율은 1,295원까지 상승한 이후 유로존 지표 부진과 드라기 총재의 경기 하방압력 발언 등으로 하락 시현
 - 월 초, 달러 약세 및 안전자산 선호 완화 영향으로 유로 강세가 강화됨에 따라 유로/원 환율 1,295원까지 상승
 - 월 중반,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및 영국의 EU 협상안 부결에 따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유로/원 환율 하락 전환
 - 월 후반, 안전자산 선호 재개 속 드라기 총재의 경기 하방압력 경계 발언이 유로 약세를 견인함에 따라 1,270원까지 하락 후 하락폭 축소

유로/원 환율 전월 대비 0.2원 하락한 1,277.1원에 마감

2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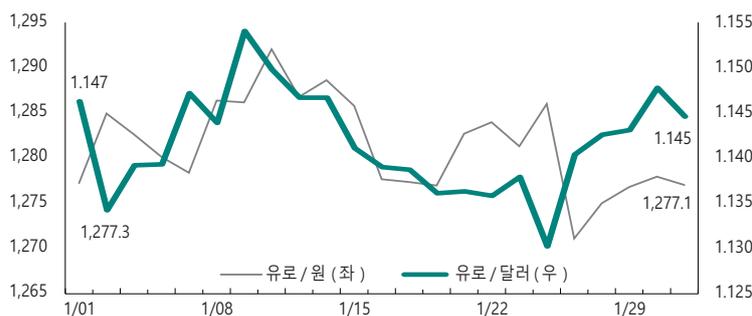
유로존 경기 부진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 리스크,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유로화 약세 견인함에 따라 유로/달러 및 유로/원 환율 하락 전망

- 달러 약세에도 유로존 내부적 문제가 유로/달러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미국 임시 예산안 시한을 앞두고 정치적 우려 확대에 따른 달러 약세 예상되나 부진한 유로존 경기와 ECB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조사 보고 등에 환율 하락 전망
 - 브렉시트 또한 3월 말 영국의 완전탈퇴 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의회의 합의안이 승인되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어 유로화 약세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유로화 약세에 따른 유로/원 환율 하락 전망
 - 유로존 내 경기 부진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 브렉시트 이슈 등이 유로/원 환율 하락을 견인할 전망
 - 다만,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원화 약세와 국내 경기 부진 등이 환율 하락을 제한할 전망

유로/달러 환율의 하락 우려 전망

유로/원 환율 제한적 하락 전망

유로/원 및 유로/달러 환율 추이



1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38달러

1월 유로/원 평균환율 : 1,277.2원

2월 유로/원 예상 범위 : 1,260원~1,285원

자료: Bloomberg, 뉴욕시장 기준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순환변동치, %

| 항 목 | 2018년 | | | | | 2019년 |
|----------------|-------|---------------|---------------|---------------|---------------|---------------|
| | 연간 | 3/4 | 4/4 | 11월 | 12월 | 1월 |
| 전 산업 생산 | 1.0 | -0.8 [0.2] | 2.6 [-0.3] | 0.6 [-0.7] | 0.3 [-0.6] | |
| 제조업 | 0.1 | -2.3 [0.3] | 5.0 [-0.8] | 1.3 [-1.6] | 2.0 [-1.8] | |
| 서비스업 생산 | 2.0 | 0.8 [0.1] | 2.4 [0.5] | 1.1 [-0.3] | 0.8 [-0.3] | |
| 소매판매액 | 4.2 | 3.9 | 2.9 | 1.0 | 3.0 | |
| 설비투자 | -4.2 | -13.6 | -5.9 | -9.3 | -14.5 | |
| 건건설기성액 | -5.1 | -9.8 | -7.8 | -10.4 | -9.5 | |
| 경기선행지수 | - | - | - | 98.7 | 98.5 | |
| 실업률 (%) | 3.8 | 3.8 | 3.4 | 3.2 | 3.4 |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 | - | - | 1.3 [-0.3] | 1.3 [-0.3] | 0.8 [-0.1] |
| 경상수지 (억달러) | - | - | - | 50,634 | | |
| 상품수지 (억달러) | - | - | - | 79,740 | | |
| 수출증감률(통관기준) | - | - | - | 4.5 | -1.3 | -5.8 |
| 수입증감률(통관기준) | - | - | - | 11.4 | 1.2 | -1.7 |
| 금리(국고채3년, 월평균) | - | | | 1,938 | 1,827 | 1,807 |
| KOSPI (월말) | - | | | 2,096.9 | 2,041.0 | 2,204.9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증권거래소

주요국 통화 대원화 환율 추이

단위: 원

| | 2018.8 | 2018.9 | 2018.10 | 2018.11 | 2018.12 | 2019.1 |
|-------------|---------|---------|---------|---------|---------|---------|
| 미국 USD | 1,112.9 | 1,109.3 | 1,139.9 | 1,120.8 | 1,115.9 | 1,112.8 |
| 일본 JPY(100) | 1,003.3 | 976.0 | 1,010.2 | 987.5 | 1,016.7 | 1,021.8 |
| 유로 EUR | 1,300.4 | 1,291.3 | 1,291.1 | 1,275.8 | 1,270.1 | 1,277.1 |
| 영국 GBP | 1,445.4 | 1,446.8 | 1,458.2 | 1,428.6 | 1,421.8 | 1,458.6 |
| 중국 CNH | 162.7 | 161.1 | 163.4 | 161.5 | 162.4 | 165.7 |

주 : CNH는 서울외환시장 월말 종가 기준, 그 외 통화의 대원화 환율은 뉴욕시장 월말 종가 기준
 자료 :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19.2월)

| 일 (SUN) | 월 (MON) | 화 (TUE) | 수 (WED) | 목 (THU) | 금 (FRI) | 토 (SAT) |
|--|--|--|--|---|---|---------|
| | | | | | 1 | 2 |
| | | | | | 한 1월 CPI(-0.3% MoM/1.3% YoY) 1월 무역수지(\$4,558M) -수출/수입(-1.2%/0.9%, YoY) 중 1월 Caixin 제조업 PMI(49.7) 유 1월 Markit 제조업PMI[F](50.5) 독 1월 Markit 제조업PMI[F](49.9) 미 1월 Markit 제조업PMI(54.9) 1월 ISM 제조업지수(54.1) 12월 건설지출(MoM) 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90.7) | |
| 3 | 4 | 5 | 6 | 7 | 8 | 9 |
| 중 1월 Caixin 서비스PMI(53.9) 1월 Caixin 종합PMI(52.2) Fed's Kashkari speaks at Town Hall Event in Minnesota | 유 12월 유로존 PPI (-0.3% MoM, 4.0% YoY) 미 12월 제조업수주[F] 내구재 주문[F] Fed's Mester Discusses Economic Outlook and Monetary Policy | 호 RBA 기준금리(1.50%) 일 1월 닛케이 PMI 종합/서비스(52/51) 유 1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0.8/50.7) 독 1월 Markit 서비스/종합 PMI[F](53.1/52.1) 미 12월 무역수지 1월 Markit 서비스PMI (54.2) 1월 Markit 종합 PMI(54.5) | 독 12월 공장수주(-1.0%, MoM) 미 4Q 단위노동비용지수[P]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P] Fed Chairman Powell to Host Town Hall Meeting with Educators | 일 12월 선행지수, 동행지수(P)(99.1/102.9) 중 1월 외환보유고(\$3,072.7B) 영 BOE 기준금리(0.75%) 미 12월 소비자신용지수(\$22,149B) | 한 1월 외환보유고(\$403,69B) 일 12월 경상수지(¥1,438.7B) 미 12월 도매재고[F] |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 일 12월 3차산업지수(-0.3%, MoM) | 일 1월 PPI(1.5% YoY) 유 12월 유로존 산업생산 [SA](-1.7%, MoM) 미 1월 CPI/Core(-0.1%/0.2%, MoM) (1.9%/2.2%, YoY) Fed's Mester Speaks at Economic Outlook Conference | 중 1월 무역수지(\$57,06B) -수출/수입(-4.4%/-7.6% YoY) 미 1월 PPI/Core(-0.2%/-0.1%, MoM) (2.5%/2.7%, YoY)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 한 12월 경상수지(\$5,063.4M) 일 12월 광공업생산[F] 중 1월 CPI/PPPI(1.9%/0.9%, YoY) 미 1월 수출/수입물가-0.8%/-1.0%, MoM 1월 소매판매 1월 광공업생산(0.3%, MoM) 2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P] |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 | 한 1월 수출물가지수 (-2.0% MoM, -0.6% YoY) 수입물가지수 (-3.4% MoM, 3.2% YoY) | 일 1월 무역수지(-¥55,3B) -수출/수입(-3.8%/1.9%, YoY) FOMC 1월 의사록 | 유 2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독 1월 CPI[F] 2월 Markit 제조업/서비스/종합PMI[P] 미 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전망(17) 2월 Markit 종합, 제조업, 서비스PMI[P] 1월 기준 주택매매(-6.4%, MoM) | 한 1월 PPI(1.0%, YoY) 일 1월 CPI(0.3%, YoY) 유 1월 유로존 CPI(0.0% MoM, 1.6% YoY) 독 2월 IFO 기업환경지수 | |
| 24 | 25 | 26 | 27 | 28 | | |
| | 미 1월 시카고 연방 국기활동 지수 2월 델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FOMC 1월 의사록 | 한 2월 소비자심리지수(97.5) 독 3월 GfK 소비자신뢰지수 미 1월 신규주택매매 2월 리치몬드연방 제조업지수(17) 2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지수 | 한 3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비제조업 미 1월 내구재주문[P] | 한 BOK 기준금리(1.75%) 미 1월 도매재고(P) 4Q GDP 연간화(QoQ) 4Q GDP 물가지수 4Q 개인소비 2월 시카고 구매자협회 Fed's Clarida Remarks at Economic Policy Conference | | |

* 주 :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안은 이전치

KEB Hana Market Monthly



본 자료에 대한 문의는 KEB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FAX 729-019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KEB하나은행 외환포탈 (www.kebhana.com → 외환포탈FXKEB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